

'박지성이 열고 박주영이 닫고' 복적됐던 여름이적시장

등록 2012.09.02 09:20:28 | 수정 2016.12.28 01:11:2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지성(31·퀸즈파크레인저스)과 박주영(27·셀타비고) '양박'이 올 시즌 한국선수의 유럽축구 이적시장 문을 열고 닫았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셀타 비고는 31일 오후 8시(한국시간) 박주영의 공식 임대 영입 사실을 발표했다. 9월1일 오전 8시 유럽축구 여름이적시장이 공식 마감되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박주영이 이적시장의 문을 닫은 셈이다.

박주영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적료 100만 유로(약 14억원)에 1년 임대 형식으로 알려졌다.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을 추진하는 옵션 조항도 함께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고에 등지를 뜬 박주영은 앞서 프리메라리가를 밟은 이천수(31·전 레알소시에다드), 이호진(29·전 라싱산텐데르)에 이어 역대 3번째 라리가 무대를 밟는 한국인 선수가 됐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과 박주영을 포함해 김보경(카디프시티),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이상 23·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에서 뛰고 있는 11명의 해외파 선수들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이번 여름 이적시장 동안 새 팀을 찾아 떠났다.

올 시즌 여름이적시장의 포문은 '양박'의 형님 박지성이 열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선구자답게 이적에도 앞장 섰다.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빨리 이적을 완료했다.

박지성은 지난 7월9일 7년 간 정들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퀸즈파크레인저스(QPR)에 새 등지를 틀었다. 축구 선수로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새롭게 택한 모험이었다.

리그 최고 명문팀을 마다하고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하위 팀을 선택한 박지성은 항상 그랬듯 QPR에서 '위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8일 박지성에 한 달 앞서 차두리(32·뒤셀도르프)가 먼저 이적했다.

차두리는 2년 간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셸틱 생활을 마치고 자유 계약 신분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뒤셀도르프로 이적했지만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이적 기간 전이었다. 사정상 박지성이 첫 이적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올림픽 첫 동메달의 신화를 쓰는데 큰 몫을 한 '제2의 박지성' 김보경은 이적까지도 박지성의 바로 뒤를 따랐다.

올림픽대표팀과 함께 7월16일 런던에 입성한 김보경은 현지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7월27일 카디프시티와의 이적 계약을 마무리했다. 계약 기간 3년에 300만 유로(약 43억)의 이적료를 이끌어 냈다.

김보경은 올림픽을 앞두고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오가며 맹활약했고, 그 대가로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를 떠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의 카디프시티행을 확정했다.

김보경이 올림픽 이전에 이적을 마무리하고 휴가분한 마음으로 올림픽에 전념했다면 기성용은 그 반대였다. 느긋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고 올림픽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몸값을 끌어올렸다.



결국 스완지시티 스카우트의 눈길을 사로잡은 기성용은 지난 25일 600만 파운드(약 107억원)의 이적료를 받아냈다.

이는 스완지시티가 1년 전에 대니 그레엄(27)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했던 클럽 사상 최고 이적료인 350만 파운드(약 63억 원)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축구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기성용은 역대 최고 대우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됐던 구자철은 1년 임대를 연장해 2012~2013시즌을 소화하게 됐고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더랜드에 입단한 지동원은 2014년까지 변함없이 팀을 지킬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린 이청용(24·볼턴)은 자신이 없는 사이 팀이 2부리그로 강등된 상황임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위건과 스토크시티까지 영입전에 나섰지만 당분간 소속팀의 1부리그 진출에 힘쏟기로 결정했다. 그가 보인 팀에 대한 강한 애정은 오히려 본인의 가치를 높인 셈이 됐다.

챔피언십에서 예전 기량을 다시 입증하면 이청용은 자신의 진짜 가치에 걸맞은 팀으로부터 좋은 이적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에스토니아리그인 올림피FC에서 뛰던 20세이하 청소년대표 출신 김경중(21)은 박주영보다 하루 앞선 지난 30일 독일 2부리그 MSV뒤스부르크로 임대 이적했다. 뒤스부르크는 2006년 안정환이 입단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2012시즌 6개월 단기 임대 형식으로 프랑스 리그1의 명문 지롱댕 드 보르도에 입단한 김경중은 이후 에스토니아의 올림피FC로 임대됐고 최근 다시 뒤스부르크로 팀을 옮겼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FC호로닝언의 석현준(21)은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같은 리그의 VVV벤로로 임대 결정이 났으나 벤로가 막판에 계약을 파기해 호로닝언에 남게 됐다.

축구판 '슈퍼스타K'로 불리는 아마추어 선수 발굴프로젝트 '더 찬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문선민(20)은 올해 1월 스웨덴 3부리그 소속 외스터순드FK에 입단해 여름이적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선수의 이적 소식이 많았던 이번 여름이적시장이 종료된 2012~2013시즌 유럽축구에도 한류(韓流) 바람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kyusta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